

도감사 익새밭

웬일일까? 아침에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아빠가 종이 한 장을 주셨다.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이다. ‘가족 체험학습 신청서.’ 그러면 우리 가족여행 가는 건가? 나는 아빠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다. 지각할 것 같아 학교에 갔다.

아빠는 늘 바쁘다. 그래서 아빠랑은 설날과 추석 빼고는 여행가기 힘들다. 조선소에서 용접하는 아빠는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은 야근을 한다. 아빠 몸에서는 항상 쇠가루 냄새가 난다. 그리고 주말에도 잔업한다고 출근하기도 한다. 항상 피곤하다. 그런데 갑자기 체험학습이라니 궁금해졌다.

그럼 그렇지. 잔뜩 기대했었는데 실망스럽다. 놀이공원이 아닌 도감사였다. 자동차로 가면 30분도 안 되는 곳이었다. 엄마도 없다. 엄마는 마트에서 봄철 판촉행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 아빠랑 내 몫의 김밥만 챙겨 놓았다. 나와 나이가 같은 자동차는 가는 내내 힘들어 했다. 잠깐 잠들 뻔 했는데 자동차가 멈추었다.

왕인박사 유적지.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몇 번 왔던 곳이다. ‘여기를 또 구경해야 하나?’ 하고 걱정했다. 다행히 아빠는 트렁크에서 자전거를 내렸다.

“지금부터는 자전거 타고 가자. 금방 도착할 거야. 우리 도갑사에서 도시락 먹자.”

아빠가 먼저 갔다. 내 자전거는 아빠 자전거를 따라갔다. 길옆으로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었다. 지난 주 벚꽃축제가 끝나고 지금은 벚꽃이 많이 시들었다.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벚꽃이 조금 시들었구나. 그래도 저번 주에 왔으면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야. 시끄럽기도 하고. 차라리 지금이 조용해서 좋지?”

아빠 말이 맞다. 자전거 타기에도 안전하고 벚꽃도 자세히 볼 수 있다. 꼼꼼히 보니 꽃마다 모양도 다르다. 멀리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였는데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크기도 색깔도 다르다.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도 좋아했을 텐데. 내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왔으면 좋겠다. 길이 구불구불해서 재미있었다. 꽃냄새를 맡으며 신나게 달리다 보니 삼거리가 나왔다. ‘도갑사’라고 적힌 도로로 방향을 잡았다.

도갑사 입구까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편하기는 했지만 재미는 없었다. 그래도 도중에 도갑저수지에서 잠깐 쉬면서 땀도 식혔다. 절에 오면 항상 맨 먼저 계속 물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올 봄에는 비가 적게 왔는지 조용했다. 대신 나무 냄새가 진하게 퍼져왔다. 입구에 엄청 큰 나무가 있었다. 450년이 넘는 팽나무였다. 두 마리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입구에 들어서자 눈을 동그랗게 뜬 근육덩어리 수염 아저씨들이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아가스님 조각이 즐린 듯 양손을 내밀고 있었다. 절 뒤편에는 큰 돌덩이들이 이층 삼층으로 쌓여 있었다. 스님들의 무덤이라고 했다. 스님들은 죽으면 화장을

해서 가루를 돌덩어리 안에 넣어둔다는 것이다.

이제는 절을 전부 구경했다 싶어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아빠가 멋진 곳이 있다고 했다. 궁금증에 따라갔다. 절 뒤쪽으로 등산로를 올랐다. 흙냄새가 났다. 멀리서 청설모가 등산로를 가로질러 달렸다. 다리가 저려올 쯤에 우리는 멈추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우리는 조그마한 봉우리 정상에 있었다. 멀리 월출산 천왕봉이 보였다. 풀이 잔뜩 산꼭대기를 덮고 있었다. 억새였다. 억새는 바람에 절대 꺾이지 않는다고 아빠는 말했다. 아빠와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다.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다.

“아빠, 오늘 무슨 날이야? 회사도 안 가고 나랑 여기를 오고?”

“사실은 아빠가 회사를 그만뒀거든. 그래서 오늘부터 쉬는 날이 되었어. 그동안 아들하고 여행도 못 갔잖아. 그냥 와보고 싶었어.”

“정말? 그럼 이제 우리 가족 굶어?”

“아니지. 아빠는 다시 억새처럼 일어날 건데.”

아빠는 손으로 억새를 가리켰다. 바람에 억새가 춤을 추었다. 휘청거렸지만 부러지는 갈대는 하나도 없었다. 아빠가 손을 내밀었다. 팔뚝에는 용접불꽃에 덴 흉터가 있었다. 나도 아빠 손을 잡았다.

강지운

목포 영산초등학교 6학년